

목어

기록자료가 아쉬운 사찰



한국불교의 오랜 역사로 말미암아 고찰에는 성보문화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전화를 걸어 사찰지나 화재로 불타버린 것들도 많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옛 고승들의 저술이라든지 사찰의 역사를 기록한 사지와 같은 기록자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불자들의 책임이 크다.

요즘 사적지를 정리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옛 스님들의 정성을 엿보고 싶다면 눈물겨울 지경이다. 각 법당의 건립과 중건, 규모를 자세히 소개하고 법구를 다기 하나 수저 하나까지 일일이 열거해 놓은 선사들의 세심함을 엿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따금 고승들의 어록을 출간하고 있는 제자들이 평소 스님의 법문이나 일상의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다. 이를 보더라도 기록자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성싶다.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말이나 글을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 문자를 서운 교리를 뛰어넘어 바로 마음을 꿰뚫어 견성성불할 수 있다는 선가의 지침이 강세를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은 곧 살아 있는 역사이며 역사를 바로 알아야만 우를 반복해서 범하지 아니하고 그 교훈을 새 역사를 일구는데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은 통설이다.

적어도 고찰의 역사적 기록만큼은 어느 절에 가거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기록자료를 하나하나 엮어 나가는 지혜와 정성이 요구된다.

주지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가람수호나 포교활동 등 지극히 기록자료를 남겨놓는다면 그것은 커다란 업적이 되는 동시에 불교와 사찰발전에도 큰 성과를 거두리라 본다.

도수 (정인도당 회주·본지 본설위원)

사찰문화재 범위 폭넓게 해석

관람료 반환소송 기각의미

관람객 서비스 강화 과제로 "합동징수 민원대책 급선무"

참여연대가 천은사를 상대로 낸 문화재 관람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서울지법 민사1부 16부가 원고 패소를 내림으로써 이후 합동징수 제도와 관람료 사찰의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방안 마련이 중대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소송은 조계종으로서 매우 걸려온 것이었다. 소송 당사자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이고, 패소했을 경우 참여연대의 주장처럼 조계종이 부당이득금을 행하는 집단으로 매도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인 하지만 서부지원의 판결로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문화재의 범위, 관람 행위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 아직 판결문이 소송당사자들에게 송달되지 않아 기각 판결의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화재의 범위를 폭넓게 보아야 하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때 표시로 들어올 경우 관람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천은사와 조계종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천은사와 조계종은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문을 통해 "사찰의 문화재는 하나 하나가 독립하여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가질 뿐 아니라, 당해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사찰 전체와 그 수행환경, 주변의 자연적 문화적 환경 등이 일체가 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천은사 대표사로 들어온 입장객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천은사에 소재한 유형문화재는 물론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천은사의 구성 부분인 방장선원 삼일암 도계암과 주변의 경내지를 관람할 수 있다"며 "입장객의 주관적 의사를 관람료 징수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함께 받는 합동징수 제도가 계속 실시될 경우,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이용자의 저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는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이다. 이는 조계종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하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소송을 낸 직후 구성된 특별대책위는 당시 성명을 통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대통령의 공약이었다"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해 시비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조계종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연간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200억원(99년인)데, 정부 예산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고,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보다 먼저 징수했으므로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해 징수 저항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에게는 관람료 사찰 내방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내방객들에 대한 포교는 둘째치고 문화재에 대한 안내만큼은 해야 한다. 사찰의 문화재가 승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조상들이 남긴 값진 문화유산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단지 보는 관광이 아니라 공부하고 체험하는 답사의 의미로서 관광의 형태가 변화했다. 이 같은 추세에도 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불자는 "램플릿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찰이 있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문화재관람료 징수 저항이나 참여연대의 소송도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1월 19일 총무원을 예방한 민주당 김중권 대표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대스님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

정대스님 총재 비판 발언 이후

"부적절한 발언" 쏟아지는 비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 대한 비판 발언 이후 조계종 홈페이지를 통해 비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서실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종교와 정치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대스님은 1월 19일 총무원을 예방한 민주당 김중권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그 사람이 총재가 집권하면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보복이 난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을 했다.

정대스님의 발언 직후 스님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조계종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는 1월 20일부터 2일까지 6천여건의 의견이 올랐다. 대부분 정대스님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 홈페이지 의견 6천여건 올라

정대스님의 이 총재 비판 발언이 우발적이었던 의도적이었던 조계종의 신뢰를 실추시킨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총무원 주변에서는 사서실의 기능을 강화해 설화(舌禍)를 예방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한 스님은 "사서실은 의견과 일정 조정, 정책 보좌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조계종의 입장을 대외에 밝힌다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로 삼아 해법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현재의 사서실은 의견과 일정 조정 등에 그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나마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외부 인사의 총무원장과 공직서면, 행사 참가 등의 일정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외부 인사가 총무원을 예방해도 해당 부서에서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대스님의 발언을 계기로 종교와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정권교번 영산대총장은 "불교가 정치에 대해 갖는 관점은 참여적이면서도 갈등을 순화하는 이상적인 정치문화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정치에 엄정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불교의 이념이며, 정교 분리의 현대 국가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또 "불교도들은 악한 통치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우선 스스로가 그를 감화할 수 있는 높은 인격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부처님을 향한 원력으로 세속의 정치를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유사종교 가입 사실무근"

태고종 총무원장 종연스님은 총무원장 당선 직후부터 일부 스님들에 의해 제기된 '가야산 유사종교단체 가입설'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음해"라고 해명성 담화문을 발표했다.

1일자로 발표된 담화문에서 종연스님은 "3년 전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가야산에 소재한 (사)의식개혁운동중앙회를 찾아간 일은 있지만 그 단체의 수련방법이 불교와 크게 다르지 않고 더 이상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었기에 곧 관계를 끊었다"면서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에 심취해 있고 그 단체의 간부직에 있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소문이 있으나 이는 사실무근이며 음해로, 본인은 누구보다도 부처님과 불법을 위해, 또 태고종단을 위해 봉사하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 단체에 거액의 사찰재산을 헌납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개인 소유의 사유지로, 그 땅을 제주에 거주하는 강모씨라는 개인에게 매도했고, 매매계약서까지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날조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3사(불원사 백련사 안정사, 서울에 있는

"3사 배제설 근거없어 사찰재산 헌납설 날조"

태고종 3대 사찰을 배제시킨다는 설에 대해서는 "서울 3사가 태고종의 중심사찰로 태고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할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한데 이러한 3사를 배제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담화문을 발표한 자리에서 동석한 규찰부장 수보스님은 "적법하게 선거에 의해 당선되고 공식적인 취임식까지 가진 종원 총무원장에 대해 일부 스님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해중행위자로 간주해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스님들이 참회하면 관용을 베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을 외치는 행위로 간주, 중법에 의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종연스님은 지난해 11월 23일 운산스님(재단법인 태고원 이사장)과 2차까지

태고종 종원 총무원장 1일 담화문 발표



가는 투표에서 1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총무원장에 당선된 이후, 인공스님(봉원사 주지) 대은스님(총무원장협의회 회장) 원보스님(전 부원장) 등 일부 스님들에 의해 "자격없다"는 비난에 시달려 왔다. 이들은 "가야산에 소재한 유사종교단체에 심취해 있고 사찰재산을 헌납했다" "3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킨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했다" 등의 청원서 및 성명서를 잇달아 고계 신문에 광고로 내며 종연스님이 총무원장 자격이 없으므로 조속히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은스님 등은 3월 열리는 임시총회에 총무원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해 총무원은,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당사자들을 해중행위자로 간주해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으로서 그 귀추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경숙 기자(glslee@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mahamall.co.kr,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2001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Table with 4 columns: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Rows include 개호복지사과, 불교학과, 불교미술(문화재)과, 중국어(한외대입학과정)과, 포교사과정.

- 3. 특전: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개호복지사 2급 자격취득,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2월 24일까지, 전형 방법 서류전형(우편은 당일 소인 유료).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교학과: TEL. 02)511-2026-8 FAX. 02)511-1080, E-mail: samhwade@kornet.net, 일반통경분고 TEL 047)376-1321, 132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한 의 과 대 학

Table with 3 columns: 학과, 학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Rows include 한의학과 (5년),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장비,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군입대 연기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 2. 학교소개: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장비,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군입대 연기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문의처: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주소: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25-6798171 팩스: 25-6798168, 한국 상담 안내처: 삼화불교대학, 전화: 02-511-2026-8 팩스: 02-511-1080.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Table with 3 columns: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Rows include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특전: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문의처: 1365-887 서울시 강남구 선사동 511-5, TEL: (02) 511-2026-8, FAX: (02) 511-1080.